



'메리 크리스마스'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성탄절을 함께 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평화를 갈구하는 인간적 공감은 관객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 총탄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참호 사이로 평화의 캐럴

전쟁의 참화로 얼룩진 1914년 성탄절 처절한 전투도 멈추게 한 평화의 노래 100년 지난 지금 다시 평화를 외치다

가랑비와 소나기가 번갈아 흩뿌렸다. 늦 가을의 스산함보다는 비로 인한 궂은 날씨 의 기운이 더 짙어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에 서 파리 시민들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개 선문으로 통하는 인근 7개 지하철역과 방 사형의 도로는 모두 통제됐다. 인도와 차도 를 경계 짓는 바리케이드를 방패삼아 1만 여 경찰이 삼엄한 경비에 나섰다. 하지만 상점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11일 일요 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파리 시민들은 그 앞을 여전히 우산 없이 분주히 혹은 천천히 오갔다. 100년 전 그들에게도 이날 같은 한 가로움이 있었을까.

###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일상이 혼란에 빠져들며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14년이었다. 그해 6월28일, 오 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 프 1세의 조카이자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 난트가 임신한 부인 조피와 함께 오스트리 아의 속국 보스니아의 세르비아를 찾았다.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구 가 결혼 14주년을 맞은 부부를 향했다. 총 탄은 황태자의 머리와 조피의 복부를 관통 했다. 오스트리아는 한 달 뒤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의 본질은 복잡했다. 식민지 확대를 꾀하는 제국주의의 충돌. 독립을 꿈꾸는 발

칸반도 지역의 범 세르비아와 독일·오스트 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 게르만의 대립 등 민 족주의 분쟁, 산업혁명 이후 끓어오르기 시 작한 혁명의 기운과 이를 잠재우려는 계급 간 투쟁이 얽혔다.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 다. 아직 연방체인 조국을 북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과정에서 '철의 재 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황제 빌헬름 1세 의 지원 아래 오스트리아와 맞섰다. 오스트 리아를 굴복시킨 뒤 오랜 숙적이었던 프랑 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이번엔 다시 오스트 리아와 동맹을 맺었다. 동시에 "시대의 문 제는 철과 피로써 해결된다"며 영국과 프랑 스를 앞지르려는 후발산업국의 위상을 부국 강병으로 구축해갔다. 하지만 빌헬름 2세가 등극하면서 그는 자리를 잃었다. 새 황제는 제국주의와 범 게르만의 확장이라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러 일전쟁에서 패배한 뒤 발칸 진출을 위해 세 르비아 지원을 명분으로 오스트리아를 겨눈 러시아의 전쟁 선언은 좋은 빌미가 됐다. 독 일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프랑스, 중립국 이 벨기에로 진격했다. 독일의 세력 확장을 지켜볼 수 없었던 영국은 물론 독일 잠수함 의 공격에 피해를 입은 미국 그리고 근대화 의 눈을 떠 중국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까 지 전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 34개국이 참전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참혹한 전쟁이었다. 잠수함과 탱크. 기관총 등 온갖 '최첨단' 무기가 등장했다. 독가스로 불리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목숨 을 무참히 앗아갈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 시켜주기도 했다.

#### ●잠시의 평화, 영원할 수 없나

전쟁 발발 두 달여 만인 1914년 가을, 프 랑스의 저항에 독일은 주춤거렸다. 전투는 고착화했다. 병사들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 했다. 적의 포탄이 파 놓은 구멍을 더 파 들 어가기도 했다. 지면은 때로 해수면보다 높지 않아 질퍽했다. 구덩이를 파면 팔수 록 물이 솟아났다. 그 위로는 모래주머니 를 쌓아 방어용이자 경계용으로 썼다. 프 랑스군은 잔가지를 묶어 이를 대신하기도 했다. 구덩이는 '갈 지(之)'자 형태로 이어 졌다. '참호'(tench·트렌치)는 그렇게 구 축됐다.

각 진영은 몇 십 미터에 불과한 완충지대 를 두고 마주 보기도 했다. 완충지대엔 철 조망이 설치됐다. 머리를 참호 위로 내밀기 라도 하면 저격병의 총탄은 정확히 날아들 었다. 병사들은 "돌격! 앞으로!" 명령에 30~40kg의 군장을 멘 채 참호를 넘어 날 아드는 기관총 총탄을 향해 달려 나아갔다. 병사들은 철조망 위로 쓰러졌다. 그렇게 1000만명 가까운 이들이 스러져갔다.

그러나 병사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 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죽음을 소리로 예감 하기도 했다. "흰 곰팡이, 초목이 썩는 냄 새, 사람과 동물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가득한 구덩이 속에서 몸을 잔뜩 낮 춘 병사들은 "폭발 후 대기 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포탄 뚜껑의 귀신같은 소리, 병사들 의 낮고 구슬픈 울음소리, 포격으로 어지럽 게 흩어진 엄청난 파리 떼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쥐들의 새된 비명소리, 숭고한 부조 리라고 할 만한 새들의 노랫소리"에 시달

리스 지음·정병선 옮김)

김없이 찾아왔다. 솜(Spmme)을 비롯한 프 랑스 북서부 지역을 최대의 전장으로 삼았 던 병사들에게 1914년 성탄절은 더욱 특별 했다. 누군가 성탄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노래는 참호를 넘어 완충지대를 지났다. 병 사들은 참호를 빠져나와 완충지대에서 서 로 인사를 나눴다.

"Merry Christma(메리 크리스마스)!" "Joyeux Noel(조이유 노엘)!" "Fröhliche Weihnachten(프뢸리헤 바이나흐텐)!"

축구시합을 했고, 소지품 가운데 무언가 를 선물하기도 했다. 노래는 전투를 멈추게 했다. 완충지대에 스러진 전사자들의 시신 도 찾아 거두도록 배려하게 했다. 순간. "많 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적이 인간이라는 사 실에 깜짝 놀랐다"(위 책). 오로지 인간들 의 선의만이 구덩이를 메워 평화의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냈다.

"만약에 내가 영화 필름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면 맹세컨대 날조된 것이라고 여겼 을 것이다."

존 엘리스의 글을 빌려 말한 것처럼, 1914년 전장에서 평화는 기적과도 같았 다. 적어도 그날 선의의 인간으로서 평범 한 이들과 전쟁을 몰고 온 엄혹한 현실은 무관했다.

4년 뒤 11월11일 프랑스 북동지역 콩피 에뉴의 숲에 도착한 독일 열차 안에서 전쟁 은 종지부를 찍었다. 1914년 서부전선에서

렸다.('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존 엘 부터 싹을 틔울 수도 있었던 평화의 꽃은 오래도록 피어나지 못했다. 징계를 감당해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에게도 성탄은 어 야 했던 병사들은 제각각 더욱 참혹한 전장 으로 배치되거나 자국으로 송환됐다. 그 후 로 나치와 파시스트가 다시 폭력으로써 세 계 장악을 꿈꿨다. 폭력적 차별과 대립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극우세력의 위협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 종전 100년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0일 콩피에뉴를 찾아 서로의 이마를 맞대며 평 화를 약속했다, 뒤이어 11일 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70여개국 정상들이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앞에 섰다. 과연 평화는 오는 것인가.

> > tadada@donga.com

###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연합군인 프랑스군과 스코틀랜드군 이 적군인 독일군과 함께 보낸 서부전선의 성탄절. 각기 구축한 참호를 방패삼은 참혹 영국 보병부대의 장교 에드워드 헐즈가 한 전투의 외중에 이들은 음악을 계기로 평 화를 갈구하는 인간적 공감을 따뜻하게 나 눈다. 독일 출신 다이앤 크루거와 벤노 퓨 어만, 프랑스의 기욤 까네, 스코틀랜드 출 신 게리 루이스 등 실제 각 나라의 배우와 크리스티앙 카리옹 감독 등 스태프가 참여 해 2005년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서 상영했고,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영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 입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럭셔리 니트 폴라티

파브리지오 니트 폴라티

입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신개념 유럽풍 럭셔리 니트 폴라티 5종을 명품 파브리지오에서 야심차게 선보였다. 파브리지오 니트 폴라티는 컬러풀한 색상과 심풀한 디자인 으로 정장, 청바지, 면바지 등 어떤 바지와 코디해도 잘어울리며, 슬림라인과 신축성으로 깔끔하고 멋 스러워 품격있는 중년층을 위한 최상의 제품이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보들보들 촉감 좋은 소재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우며, 카라 위로 보이는 목폴라가 어떤 옷과 매치해도



또한 활동성과 보온성으로 겨울뿐 아니라 봄, 가을까지 입을 수 있으며, 따뜻함과 스타일까지 모두 놓치지 않는 부드러운 촉감과 신 축성이 좋아서 굉장히 편 안하게 입기 좋은 텐션감

마르거나 뚱뚱한 체형을 가진것과 관계없이 모두

라고 설명했다.

이 좋은 실용적인 티셔츠

에게 체형을 가진 것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알맞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핏으로 밑단이 조여지는 느낌도 없으며 소매는 시보리로 잡아주어 흘러내림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시기념 할인행사는 (주)홈쇼핑코리아에서 소비자가격 69,800원(1장)을 3만원 인하하여 39,800원에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5개월로 300장 한정 할인 판매하며, 제품의 소재는 울50%, 아크릴 50% 구성되어 있으며 100% 국내에서 생산한다. 색상은 블랙(검정)/카키(쑥색)/네이비(곤색)/ 그레이 (진회색)/와인(복분자색)이며, 남녀공용으로 사이즈는 95/100/105/110으로 선택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80-997-0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흡속/속건/항균기능, 테스트에서 A등급 합격판정...최고급 니트 면양말로 평가

미츠바 니트 면양말

금번 미츠바에서 출시한 니트 면양말은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클래식함과 유니크함을 동시에 표현 하였으며, 양말 안까지 깔끔하게 마감처리하여 착용감이 뛰어나며, 바닥 부분은 볼록볼록 삼중파일 조직으로 되어있어 발의 피로도를 덜어주며, 흡속/속건/항균 기능을 두루갖춰 테스트에서 A등급

합격판정을 받은 최고급 니트 면양말로 평가되었다. 또한 일반 봉제보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있어 발가락이 베기지 않아 편안하고,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주름라인이 멋을 더해주며, 스판텍스 원단 사용으로 신체의 운동 상황에 알맞게 늘어나는 고신축성 소재로 4방향 전,후,좌,우 모두 늘어남 으로 사용자의 어떠한 운동 상태에 따라서도 원 단이 신축성 있게 늘어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으로 설계되었다. 소재는 면75.6% 폴리에스테르 22.2% 스판덱스2.2%로 구성되어 있어, 신는 순간 발에 맞춘 듯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발목을 조이 거나 발이 갑갑하지 않고 미끄럽지 않아 신발과 하나되는 느낌을 주며, 발가락 부분은 봉제선이 없어 착용감이 편안하며, 발뒤꿈치 모양에 맞춘 설계로 잘 흘러 내리지도 않으며, 땀 냄새와 무좀을 방지하는 소취가공으로 발 건강 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재질로 착용감이 아주 좋은 미츠바 니트 면양말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최고급 양말을 저렴한 가격에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색상은 검정/군청/황토/밤색/회색 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판매가격은 1세트(5켤레)에 39,800원이며 신상품 출시기념으로 선착순 300분에 한하여 사은품 으로 1세트(5켤레)를 추가하여 총(10켤레)를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배송해 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itzvah.co.kr 또는 080-997-0000으로 문의하면 된다.